

LOCAL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완도, 도심 주차난 해소 박차 행복충전소·개포지구 등 2곳

완도군은 완도읍권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타워 2동(행복충전소·개포지구 주차 타워)을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충전소는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74억원(국비 45억원·군비 29억원)을 투입, 현대아파트 인근(군내리 1162)에 있던 노오 주차장 부지에 주민 근린 생활 시설을 포함 지상 3층, 4단(주차면 수 200면)으로 조성된다.

완도읍 개포지구 주차 타워는 총 사업비 47억원(도비 13억원·군비 34억원)을 투입, 옛 한전 부지(군내리 1240-14)에 지상 3층, 4단(주차면 수 82면)으로 건립된다. 행복충전소와 개포지구 주차 타워는 다음달 초 착공해 3분 기 내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음에 따라 공사 기간 중 주차난을 최소화하고자 주민 설명회 개최, 공사 안내 현수막 게시, 임시 주차장 안내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연기 구제역 확산에 내달 18~20일

강진군은 도내 구제역 발생함에 따라 '제28회 전라병영성축제'를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는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주 미뤄진다.

군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남 10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고려해 군민들과 협의를 통해 축제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남미역사 일원에서 개최했던 서부해안권 봄꽃축제는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할 자체 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쭉, 서부해안권 봄꽃 개화 시기인 4월 5~27일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은 구제역 예방 활동과 함께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8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심리길축제와 강진 불금불과 등 다른 행사들은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률 등 추이를 파악해 행사 일정 연기 또는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강진=이진택 기자



나비스카페



나비잠자리 전경



마을공작소



해보꽃무릇 카페

함평, 주민 주도형 도시 건설로 자치 실현

나비스카페·나비스스토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이상의 군수 “지역특화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청년창업”

함평군이 지속 가능한 주민 자치 실현과 원도심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 거점시설은 지난 1월 개업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거점시설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

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함평읍 중앙길 가변상가에는 나비스카페, 나비스스토어, 나비잠자리, 마을공작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은 ‘함평전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탁 관리하고 있다.

나비스카페는 커피와 함께 지역 농

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체중 관리에 효능이 좋은 수국꽃으로 만든 ‘속수라떼’가 있으며, 나비스스토어에는 지역 농가의 농산물 가공품이나 공예 기념품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나비잠자리는 숙박시설로 2인실 5실, 4인실 1실, 4인 이상 파티룸 1실 등 총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입실은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퇴실해야 한다. 예약은 마을 조합 분

과장(061-894-7001)에 문의하면 된다. 함평전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상가 운영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도 이바지하며 민·관 협치로 지역공동체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각 면에서도 주민 거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나산면에서는 나산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산 할머니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보면에서는 해보면꽃무릇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전통시장에서 ‘꽃무릇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면에서는 예전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교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건강드림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를 활용한 주스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 등으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공동체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시가 원도심 권역 금남동, 성북동, 송월동과 남평읍 상권 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주, 원도심 상권 부활 프로젝트 시동

금남·성북·송월동 등 상권 활성화 용역

나주시가 원도심, 남평 권역 상권 부활 프로젝트에 나선다.

나주시는 원도심 권역 금남동, 성북동, 송월동과 남평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역 상권 쇠퇴와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로컬기반의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변화했던 옛 나주 원도심의 명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청년 상인과 젊은 고객이 유치하면서 맛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화 공간 조성을 전략 기조로 삼았다.

특히 해당 권역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권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율

상권구역 지정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와 차별화된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방향을 담되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군 통합 30주년의 해에 이번 용역을 통해 원도심과 남평읍 상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구례산수유꽃축제 9일간 ‘대성황’

내달 초까지 관람 가능...300리 벚꽃축제 등 연계도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구례산수유꽃축제 제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서는 농특산품 판매 장터의 이동과 공간 배치의 변화를 통해 주행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특히 농악과 라인댄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음식점 수 확대와 가격 관리, 푸드트럭의 운영으로 방문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일회용품 대신 대화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축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축제가 끝났지만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다음달 초까지 만개한 노란 산수유꽃 물결을 관람할 수 있다.

구례가 끝났지만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다음달 초까지 만개한 노란 산수유꽃 물결을 관람할 수 있다.

대적으로 개화율이 낮아 4월 초순까지도 산수유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구례군은 설명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성 추진위원장은 “올해의 변화를 통해 산수유꽃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서천체육공원 및 문척면 일원에서 ‘구례 벚꽃로드 129km. 꽃길 속으로 떠나는 로맨틱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또한 화암사 화엄매 사진 콘테스트는 다음달 12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구례=정창희 기자 dong-eah@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